

IBKS Bond Inside

워시의 생각하는 플랫폼

채권/크레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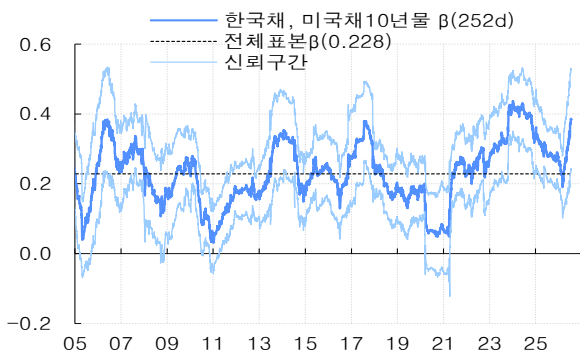
정 형 주 연구위원

hj.jeong@ibks.com

2026년 7월 FOMC에서 美연준은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다(찬성9:반대3). 2026년 7월 FOMC에서 케빈 워시의 커뮤니케이션은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2026년 6월 FOMC 기자회견 태스크포스 앵무새 모드와 성명서 길이 축소는 통화정책결정의 과거 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고, 연준의 목소리를 줄이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유입되는 투명한 정보량을 줄이고, 美연준의 경제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높인다. 연준의 목소리를 줄이면서 높이는 것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의존성'에 대한 질의에 추세를 언급했는데, 특정 데이터의 추세보다 '관계의 추세'에 집중한 답변이다. 특정 지표에 경직된 목표값을 부여하기보다 규칙을 설계하고, 시장가격이 연준의 **은밀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포워드가이던스 축소의 결과라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계의 추세(메커니즘)'을 전제한다면, 특정 주제에 대한 케빈 워시의 불투명한 표현은 거울의 방을 벗어나기 위한 무늬이다(4/8 발간자료). 예를 들어서 연준이 특정 지표를 볼 것이라 강하게 주장하면, 그 주장으로 인해 '해당 변수가 기준에 담고있던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이것은 워시의 태스크포스에 Data 카테고리가 포함된 이유다. 관측한 데이터가 강건해야 Robust 하기 때문에 서베이 데이터보다 행정적/절차적 데이터 생성에 공을 들일 것이다(AI가 집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렇다면 향후 케빈 워시(의장버전)의 행보에서 유의성을 살필 지점은 발화주체인 워시 그 자체다. 케빈 워시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권력' 확보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데이터(추세) 기반의 '반응함수' 플랫폼을 구상할 설계자인지 판별해야 한다. 반응함수에 대한 단서는 기자회견 인플레이션 충격(공급망/관세)-생산/고용 코멘트에 담긴다. 연준의 반응함수(정책전달 메커니즘) 식별순서는 '시장정보 주시Watch & 실물경제 영향력 점검'이라는 입장이다(거울의 방).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이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언급했기 때문에 FOMC 이후 이어질 반대위원들의 코멘트도 케빈 워시 커뮤니케이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채권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미국과 한국의 매크로 상황이 무척 다르다. 인플레이션만 두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美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느린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근원인플레이션 대응모드에 돌입했다. 따라서 미국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전략은 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간의 반응경로 차이를 살펴야 하고, 연결고리로 주목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는 양국의 10년물 금리차 계수다(그림 1).

그림 1.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력(관계의 예시)



자료: 인포맥스, IBK투자증권

주: 한국채10년물 변화량을 종속변수, 미국채10년물 변화량이 독립변수로 둔 단순회귀계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케빈 워시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불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반면 신현송 총재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우선순위 & K점도표 방향성이 명료하다. 두 중앙은행 총재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척 달라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료성 vs.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것조차 통화정책 수단이다. 미국의 경우 포워드 가이던스 정보량이 감소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간 프리미엄(기울기)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가파름'의 방향은 통화정책 시그널(쉽게 인상하지 않음)이 초단기물 구간에 집중되고, 나머지 불확실성이 기간 스프레드에 가산되는 형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초단기물'에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은 동일하다. 일종의 국가별 비스포크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선인 셈이다(6/18 발간자료).

AI자산운용의 핵심은 생성Generative, 예측Predictive, 자동화Agentic를 동시에 수행하는 워크플로우 구성이다. 연준이 안내한 카테고리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매크로 데이터-수익률곡선 채널을 개선할 기회다. 주제별로 고도화할 수 있는 독립적 레포지토리(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대차대조표, 데이터, 생산성/직업,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카테고리를 AI와 함께 다룰 때에는 개별 토픽에 시장대응을 위해 '질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던질지'가 중요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운용주체의 위험성향/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7/15 발간자료). 따라서 태스크포스에서 주목할 지점은 라인업에 속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다. 중앙은행의 공식신호가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시장의 가격발견 메커니즘이 해당 카테고리의 지식체계를 가격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4/10 발간자료).

종합하면, 케빈 워시가 구상하는 것은 일종의 플랫폼이다.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2026년 잭슨홀 심포지엄 주제에 주목한다. 단 기적(가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정보전달보다 태스크포스를 아우르는 빅 퀘스천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잭슨홀 심포지엄 주제는 노동시장에 방점을 뒀다. 2026년 주제는 Financial Innovation: Implications for Payment and Policy다. 직전 주제를 계승하기보다 새로운 축에서 시급한 현안을 다뤘다. 스테이블 코인과 AI가 연계하는 M2M(Machine to Machine)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먼 미래의 SF 내러티브로 보기보다 지금의 워크 플로우에 어떻게 녹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출발점은 사칙연산과 수치로 측정가능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성형 AI를 자동화에만 사용하면서 개인의 행복도는 올라가지만 조직 전체의 생산성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매크로 데이터/뉴스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구성원들이 각자 토큰을 소비해서 N번 취합하고, 재생성하고, 보고하면 과도한 중복으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은 저하될 것이다.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경쟁자보다 정밀하게 다뤄 의사결정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비둘기 바이너리 정보보다 인상/동결/인하가 더 많은 정보를 담는다. 시장대응의 다양성(연속성)도 후자가 풍부하다. 더 나아가, 인상70%, 동결20%, 인하10% 확률분포를 떠올려보자. 측정 값을 포트폴리오 비중에 매핑한다면, 보다 정교한 시장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 페이스에 돌입했기 때문에 일단 위험을 측정해야 그에 따른 위험관리도 시작할 수 있다.